



하나금융그룹, 명동 직장어린이집 개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8일 명동 사옥 2층에 '명동 하나금융그룹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다. 하나금융그룹이 오는 2020년까지 건립을 추진키로 한 국공립어린이집 90개와 직장어린이집 10개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 가운데 첫 번째 결실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뒷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내정자(두번째), 김은기 푸르니보육지원재단 대표(네번째), 고효진 명동 하나금융그룹 직장어린이집 원장(다섯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BC카드, 취약계층에 400인분 사랑의 배식 진행
BC카드는 지난 9일 구로구청·KT그룹 희망나눔재단과 함께 구로구 지역 취약계층 400명을 대상으로 '사랑나눔축제'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봄을 맞아 진행된 이번 축제에는 '빨간박차 봉사단' 10기와 KT그룹사 임직원 봉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구로구 지역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400명을 대상으로 건강식과 쌀, 고추장 등 생필품 5종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다. /BC카드



BNK경남은행, 경남혈액원에 '사랑의 헌혈증' 기부
BNK경남은행이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에 '사랑의 헌혈증'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은행이 기부한 헌혈증은 본부 부서 임직원을 비롯해 각 지역 영업본부 임직원이 지난 2월 한 달간 '2019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여 마련됐다. /BNK경남은행



한세산업, 한국뉴욕주립대와 패션분야 산학 협력 맞춘다
한세산업은 한국뉴욕주립대(SUNY Korea)와 패션 분야 산학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세산업은 한국뉴욕주립대가 운영하고 있는 패션명문스쿨 FIT 재학생들을 위해 8~12주 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인턴십 참가 학생들은 한국, 대만, 일본 출신 등 6명이다. /한세산업

'국제금형전' 내일부터 킨텍스에서 개최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은 'Smart금형 산업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제24회 국제 금형 및 관련기기전(INTE RMOLD KOREA 2019)'을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2년에 한 차례씩 열리는 국제금형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가 후원한다. 올해로 24회째인 이 행사에는 전 세계 20개국에서 450개사가 1700개

부스 규모로 참석한다. 5일간 방문 예정인 관람객만 약 9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금형산업은 전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 최근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새로운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시회는 스마트공장, 자동화·첨단화 등 산업 현장공정 혁신을 위한 국내외 유망 연관기업이 대거 참가해 금형업계 맞춤형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홍경안 의
시시일과

20여년 이상 글을 쓰고 살지만 한때는 그림 그리는 직업을 꿈꿨다. 계기가 된 건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국어선생님이 들려준 돈 맥클린의 '빈센트'였다. 구슬픈 애절한 가사와 아름다운 선생님의 목소리는 낯설기만 했던 미술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했고, 어떤 목표도 없이 걸었던 내 생애 처음으로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작은 사건이었다.

예술가를 지향하는 이들이 대개 유사한 수순을 밟듯, 나 또한 미대에 진학했다. 낮은 정권퇴진 운동과 학원자유화 투쟁에 참여하며 밤엔 그림을 그렸다.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이 자유를 억누르던 시절이었으나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어수선했음은 막연하게나마 실존이란 인간이 세계와 관계 되는 존재의 현실임을 깨닫게 했고, 미술의 영향력을 믿도록 했다.

졸업 후 개인전을 여러 번 열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못했다. 재능은 열정에 비례하는 게 아니었다. 예술에 관한 철학 역시 부족했다. 자괴감을 갖고 있던 내게 지인들은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올 것이라

어떤 이야기

고 말했다. 한데, 기회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욕망의 크기만큼 현실적인 대가의 무게도 동일해야 했다. 그게 사회였고 미술계도 다르지 않았다.

가장 힘든 건 두려움이었다. 공허한 캔버스 앞에서 체감하는 상실된 좌표와 막막함 가운데 무언가를 끄집어내야하는 부담감, 그리고 '무덤 속의 평화'와 진배 없는 작업실의 무게감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사실상 그건 '불안'과 일관성 싸움이었다.

견딜 수 없었던 그해 겨울, 그림을 모두 태웠다. 가슴에 품었던 꿈은 길었으나 산화되는 건 참으로 짧았다. 환상적 전망과 한중의 미련까지 일순간에 타들어갔다. 그렇게 작가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취업을 했고, 작가의 길과 무관한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 사이 붓 하나, 연필 한 자루 손에 쥘 적 없다. 그림에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는 발작하듯 찾아왔다. 학생 시절 자주 찾던 화방이나 역사를 지닌 전시장에 가면 유독 그랬다.

생각해보면 화방은 그 자체로 설레던 공간이었다. 주머니는 가벼워도 갖고 싶은 것은 많았고, 불필요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저 사보는 것만으로도 괜히 뿌듯하게 만드는 묘한 곳이었다. 전시장도 그랬다. 지금은 역사 뒤로 자취를 감춘 '그림마당 민' 등은, 예술의 역할과 가치를 자문하는 장소이자, 고통으로 주름지

고 빛바랜 익명을 위로하는 무대였다. 적어도 내겐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리였다.

세월의 간극만큼 마음 속 격한 감정이 돌연 세차게 일어나는 현상은 더 이상 없다. 이젠 이성의 포획물과 감성적 내면에 현시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혼동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세상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서 되려 절망과 불안의 기억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자아는 견고해졌다.

하나, 지금도 화방에 가면 쓰지도 않을 재료들을 습관처럼 주위 담는다. 전시장에서 마주하는 몇몇 작품들은 하얀 리넨 위, 세상을 색으로 수놓으려 했던 과거로 안내한다. 그렇다고 그림을 그리는 무모한 짓은 벌이지 않는다. 예술에 규칙을 부여하는 재능이란 연습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작가로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하며 서로의 삶을 위로한다. 많은 이들에게 예술가이기에 겪는 불안에 대해 말하고, 어쩌서 존중해야 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글을 쓴다. 하루하루가 냉혹하기만 한 현실 아래 유일한 평등인 죽음으로 걸어가며 남모를 강박에 시달리는 작가들, 천형임을 알면서도 해방되지 못하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한다. 어쩌면 그건 나의 이야기일 수 있었기에.

/미술평론가

롯데글로벌로지스 루게릭병 환우 위해 '아이스버킷 챌린지'

승일재단에 400만원 기부금 전달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50명이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루게릭병 환우를 위해 전 계열사가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12번째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주목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는 행사로 찬물을 뒤집어 썼을 때 근육이 위축되는 감각으로 루게릭병 환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50명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우의 고통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함께 승일재단에 400만원의 기부금

을 전달하고 다음 행사 참여 계열사로 롯데일미늄을 지목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보 <과장급>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경제총괄과장 손진욱 △총무기획관실 인사과장 박상철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기획과장 허판석 △소통총괄비서관실 언론홍보행정과장 백승일 △사회복지정책관실 복지정책과장 이화원 △시민사회복지관실 시민사회협력행정과장 양찬희 △소통지원비서관실 언론분석행정과장 김영선
- ◆고용노동부 ◇임용 <고위공무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수원
- ◆관세청 ◇승진 <고위공무원> △통관지원국장 이석문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과장 정승환 ◇전보 <고위공무원 가급> △인천세관장 이찬기 <고위공무원 나급> △기획조정과 이종우 △심사정책국장 주시경 △조사감시국장 김용식 △서울세관장 이명준 △대구세관장 김재일 △광주세관장 김광호 <과장급> △관세평가분류원장 신현은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장 오현진 △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장 김재호 △부산세관 통관국장 서재용 △북부산세관장 오상훈 △속초세관장 남성훈 △군산세관장 윤인채 △국제협력팀장 임주연

- △연수원 인재개발과장 전민식 △부산세관 심사국장 윤선덕
- ◆저축은행중앙회 ◇상무 승진 △경영지원본부 최병주 △본부장 승진 △금융본부 김생빈
- ◆국토연구원 ◇전보 △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국가방재연구센터장 한우석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 이상은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장 김중학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 이재용 △국토시물레이터센터장 이영주 △홍보출판팀장 이강식 △지식관리팀장 김상규 △연구기획·평가팀장 박경현 △예산경영팀장 전준호 △인재개발팀장 박동신 △어린이집건립추진단장 김경동 △총무관리팀장 김형표 △재무회계팀장 김성태 △청사관리팀장 이판식
- ◆한국리스크관리 ◇승진 △C&S본부 전무 류승균 △R&S본부 상무 민민식 △경영관리본부 상무 박삼근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 이영준 △정책기획단장 직무대리 김주연 △ICT산업진흥단장 직무대리 남재룡 △문화콘텐츠진흥단장 직무대리 이희선 △대외협력팀장 서호성 △정책연구팀장 임정택 △DIP아카데미 센터장 김남국 △혁신이카데미사업단 T/F팀장 이석준 △미래성장 T/F팀장 김주연

부음

- ▲이용근씨 별세, 이창수(취삼양 감사)·경화·남미·해경·창권(KB금융지주 전략총괄 전무)씨 부친상, 노대명(보건연구원 팀장)씨 장인상 = 10일 오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20분, 장지 국립 4-19 민주묘지. 02-2227-7563
- ▲강문옥씨 별세, 김진한(JH 메디텍 대표이사)·진섭(부산대 지질학과 교수)·진욱(아파트 관리소장)씨 모친상 = 9일,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12일 오전 9시. 02-2019-4000
- ▲김필건(전 대한한외화학회사)씨 별세 = 10일 오전 1시 20분, 강릉 아산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12일, 033-610-5983
- ▲구차남씨 별세, 박인갑(전 부산시 주택국장)·상욱(삼우공영 대표)·상봉(동의대 교수)·상택(임팩트인 대표)씨 모친상 = 9일 오후 10시, 부산 시민장례식장 302호, 발인 12일 오전 7시 30분. 061-636-4444
- ▲안순희씨 별세, 고석홍(대전고검 검사)씨 모친상 = 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제5호실, 발인 12일 오전 5시 45분. 02-2258-5940